

설교자를 위한 성지 가이드 V

요르단의 성지(聖地) I

장흥길 ≪ 한국성서학연구소 소장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신약학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지난 1년간 『성서마당』의 ‘설교자를 위한 성지 가이드’에, 설교자들이 성경의 배경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도록, 국가별 성지 가이드인 ‘이스라엘의 성지 I/II’와 ‘이집트의 성지 I/II’를 연재하였다. 이어 이번 호에서 필자는 구속사(救贖史)의 여러 시대와 관련된 성경의 주요 인물, 곧 구약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과 야곱, 출애굽 당시의 모세와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사사 시대의 입다,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과 압살롬, 분열 왕국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 등의 활동 무대가 되었던 ‘요단 동편 땅’(현재 요르단의 성지)을 안내하고자 한다. 2000년 『요단 동편』(*East of the Jordan*)을 출판하여 구약 성경에 언급된 요단 동편 지역의 유적지를 조사·연구한 맥도날드(B. MacDonald)에 의하면, 현재 요르단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지를 포함하여 124 곳의 성지가 있다. 먼저, 필자는 요르단의 성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그 지리적 개요, 역사적 개관, 고고학적 개요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언급된 요단 동편 지역을 여섯 지역, 곧 ‘하



갈릴리로 흘러들어가는 요단강

우란(Hauran)과 ‘바산’(Bashan), ‘길르앗’(Gilead), ‘암몬’(Ammon), ‘모압’(Moab), ‘에돔’(Edom)으로 나누어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요르단의 성지 개론

요르단의 성지는 요단 골짜기 동편의 ‘요단 골짜기 건너편 땅’(Transjordan)에 위치해 있다. ‘트랜스요르단’이란 용어 자체는 개정표준영역본(Revised Standard Version)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요단 저편 해 돋는 편/쪽’(עֲרֵב הַיַּמִּים הַמִּזְרָחִי הַיְּבֵרֵי הַיַּרְדֵּן)으로 나타나며(신 4:41; 수 12:1 등), 신약성경에서는 ‘요단강 건너편’(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으로 언급되는데(요 1:28 등), ‘요단 동편 땅’(מִזְרָח הַיַּרְדֵּן, 왕상 17:3; 왕하 10:33 등)을 참조를 가리킨다.

1. 지리적 개요

지리적으로 ‘요단 골짜기 동편 땅’은 헬몬산 남쪽 기슭을 그 북단(北端)으로 하고, 아카바만을 남

단(南端)으로 하는 요단 계곡의 동편에 위치한 땅으로, 그 동쪽 끝에서 건조한 사막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트랜스요르단을 포함하고 있는 현대의 '요르단 하심 왕국'(Hashemite Kingdom of Jordan)은 북에서 남으로, 시계방향을 따라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와 접해 있으며, 요단 골짜기 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다. 경위도상으로 요르단은 북위 28-33도, 동경 35-39도에 위치해 있다. 남북의 대략적인 거리를 살펴보면, 헬몬 산에서 야르묵 강까지가 56km, 야르묵 강에서 압복 강까지가 56km, 압복 강에서 세렛 강까지가 128km, 세렛 강에서 아카바 만까지는 160km에 이른다. 동서 너비는 좁은 곳이 50km, 가장 폭이 넓은 곳은 170km이다. 현재 요르단의 면적은 약 9만 2천km²보다 조금 넓은 크기로 남한만하다. 또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590만 명 정도이다. 고도는 헬몬 산이 가까운 높은 지역은 해발 1700m에 이르는데, 길

르앗 지방은 고도가 600-1200m, 모압 지역은 약 1200m, 에돔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1500m가 넘는 지역이 많이 있어, 남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 평균 고도는 약 600m 정도이다. 기후는 건기(乾期)인 4-8월에는 최대 평균 기온이 38.8°C로 고온 건조(8월 20-32°C)하며, 우기(雨期)인 11-3월에는 평균 최저기온이 0.5°C로 가끔 눈이 내릴 정도로 쌀쌀하나(1월 4-14°C), 대체적으로 온화한 편이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지중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연 평균 300mm 이상(자르카 지역은 910mm), 반(半) 건조 지역은 50-300mm, 건조 지역은 50mm 이하이다. 토양은 요르단의 다양한 지형과 기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요 토양으로는 평지에서 곡류나 과일 재배에 적합하지만 산지에서는 포도나 올리브 재배에 알맞은 '적색 지중해토'(Red Mediterranean)와 반 건조 지역에 많은 '황색 지중해토'(Yellow

Mediterranean), 또 이 두 토양 사이에 있어 보리재배와 목초지에 적합한 ‘황색 초원 지대’ (Yellow Steppe), 그리고 절반 이상의 ‘회색 사막토’ (Grey desert), 네 가지로 구분된다.

2. 역사적 개관

요단 동편 땅의 점유 역사에 대하여는 『앵커성경사전』(Anchor Bible Dictionary)에 그 간추린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사전의 ‘트랜스 요르단’ 항목을 주로 참조하여 요단 동편 땅 점유 역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단 동편 땅의 점유 역사는 여기에 인간이 거주한 선사 시대부터 시작한다. 아즈락(Azraq), 암만(Amman), 베이다(Beidha) 등지에서 신·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었고, ‘텔 흠 하마드’(Tell Umm-Hamad)나 ‘텔 엘 후스’(Tell el-Husn)에서는 동석기(銅石期) 시대와 초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도 발견되었다.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후기 청동기 시대(주전 1500-1200년)에는 모압 에돔, 암몬이 이곳에 정착해 있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에서 이들을 목격하였으며, 아르논 골짜기까지 세력을 확장한 시혼과 헬몬 산까지 다스렸던 옥 왕국을 멸망시켰다(민 21장).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르우벤, 갓, 므낫세 반(半) 지파가 먼저 이 땅에 정착하였다. 철기 시대인 주전 12-11세기에는 블레셋이 요르단 일부 지역을 관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모압의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기도 하였고(삿 3:12-30), 암몬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다(삿 11:4-33). 그러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압을 제압한 적이 있으며(왕하 3:4-27), 남왕국 유다는 에돔을 다스리기도 하였다. 또 다메섹을 수도로 한 아람 왕국은 때때로 바산과 길르앗을 장악하기도 하였다(왕상 22장).

주전 8-7세기에 이르러는 요단

동편 땅의 주변 지역을 북방에서 득세(得勢)한 앓수르(주전 735-606년)가 장악하였다. 앓수르는 점령한 북부 길르앗 지역을 자신의 속주로 편입시켰다. 그런 반면, 유다, 암몬, 모압, 에돔에 대해서는 이들을 조공을 받는 가신(家臣)국으로 삼았다. 그 후 이 땅은 바벨론(주전 605-539년)의 다스림 아래 있다가, 주전 539년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주전 333년에는 마케도나의 통치

를 받았다.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이곳은 온 시리아 지역과 이집트를 관장한, 그의 장군 프톨레미의 수중에 있었다. '프톨레미 Ⅱ세 필라델푸스'(Ptolemy II Philadelphus)는 랍바암몬(Rabbath-ammon)을 '필라델피아'(Philadelphia)로 개명하고 이 도시를 재건하였다. 주전 198년 트랜스요르단은 시리아의 셀류시드 가(家)의 통치를 받다가,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이곳을 정



데기볼리 중 하나 아르벨(현 이르비드)

북한 뒤에는 하스몬가(家) 또는 마카비 가(家)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어서 요단 동편 땅은 로마의 봉신왕인 헤롯 대왕(주전 37-4년)의 세력권 아래 있었고, 그가 죽자 이 땅은 그 두 아들의 지배 아래 놓였는데, 요단 강 남쪽의 베뢰아와 사해 북부는 안티파스(Herod Antipas)의 통치 아래 있었고, 옛 바산 지역, 곧 가울라니타스(Gaulanitas), 올라사(Ulatha), 파니아스(Panias), 이두

래(Ituraca), 바타네아(Batanaca)는 빌립(Philip)의 지배를 받았다. 예수님의 활동지였던 데기볼리는 예수 당시 그 최남단에 있던 팔라텔피아에서 아르뭉 강까지, 요르단 골짜기에서는 ‘와디 야비스’(Wadi Yabis)에서 갈릴리 동편의 힌포(Hippos)까지 확대되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주전 6세기경 나바트인(Nabatean)들이 등장하여 에돔을 팔레스틴 남부로 몰아내었는데,



데기볼리에 속하는 디온(텔 엘 후스)

안티파스 당시 나바트 왕국은 아르논 북부 지역도 장악하였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 다메섹 성에서 탈출할 때, 이 성을 다스리던 아레다 왕(Aretas IV)을 언급하기도 하였다(고후 11:32). 주후 106년 페트라(Petra)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나바트인들은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다. 325년 이 땅은 동로마 또는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632년 무슬림들의 정복으로 아랍 왕조들, 곧 우마야드(Umayyad, 632-750년), 압바시드(Abbasid, 750-969년), 파티미드(Fatimid, 969-1099년) 왕조의 통치 아래 있었다. 그 후 요단 동편 땅은 십자군 시대(1099-1268년)와 마므룩 시대(1263-1516년), 그리고 이를 이어서 오토만 터키(1516-1917년)를 거쳐 영국의 위임 통치 아래 있다가, 현재 그 대부분이 1946년 독립한 요르단의 국토이다.

3. 고고학적 개요

성경 고고학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성경에 언급된 유적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 유적지의 발굴을 통해 성경에 언급된 진술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있다. 요단 동편 땅의 성지에 대한 고고학적 개요에 대하여는 맥도날드(B. MacDonald)의 『요단 동편』(*East of the Jordan*) 서론 장(章)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에 언급된 요단 동편 땅의 성지를 확인하는 고고학적 조사는 1930년대 글뤽(N. Glueck, 1933 등)을 필두로 시몬(J. Simons, 1959), 아벨(F.-M. Abel, 1967)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동편 지역의 유적지들을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그 나름대로 업적이 있었으나,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들에는 미치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글뤽은 남부 길르앗과 암몬 지

역의 철기 시대를 모압과 에돔의 그것과 동일하게 여긴다. 곧 이들의 시대는 주전 13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번성하였다가, 주전 6세기 전반에 몰락의 정점에 이른다. 60-70년대 이르러 그는 이런 입장을 약간 수정하였지만, 이런 입장은 아직도 이 지역에 대한 성서 지도나 성서 지리 연구에 반영되어 있다. 또 글뤽은 1938-40년 ‘텔 알-칼라이피’ (Tall al-Khalayfi)를 발굴하였는데, 이를 주전 10세기 솔로몬이 건설한 ‘에시온게벨 (Ezion-geber)과 동일시하였다. 여전히 이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1980-90년대 여기서 발굴된 자료와 보고서를 재평가한 프라티코(G. D. Pratico)는 이 유적지의 연대를 주전 8세기 이후로 본다.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요단 동편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과 조사는 글뤽이 제시한 시나리오와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 실례는 다음과 같은 연구·조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1966-67년 미트

만(S. Mittmann)은 북부 요르단 지역(1970년)을, 1973-76년 이바흐(R. D. Ibach)는 헤스본(Hisban, 1987년)을, 1977년 이래로 1991년에 이르기까지 간간히 맥가번(P. E. McGovern)은 암만 북쪽의 바카(Baq'ah) 계곡(1980, 1997년 등)을, 1978-79년과 1982년 밀러(J. M. Miller)는 카락(al-Karak) 고지대(1991년)를, 맥도날드(B. MacDonald)는 1979-83년 ‘와디 알 하사’ (Wadi al-Hasa, 1988년)와 1985년과 1986년 고르(Ghor) 남부와 북서 아라바(Arabah, 1992년), 또 1999년 타필라(Tafila)-부사이라(Busayra) 지역을 각각 발굴하여 보고하였는데, 이 경우 그러하다. 그 외에도 아하로니(Y. Aharoni, 1979년), 바틀렛(J. R. Bartlett, 1989년), 디어만(J. A. Dearman, 1989년), 뢰브너(U. Hübner, 1992년), 칼라이(Z. Kallai, 1986년), 크나우프(E. A. Knauf, 1991/2년), 레마르(A. Lemaire, 1981, 1987, 1992년), 맥도날드(B. MacDonald, 1994년), 밀러(J. M. Miller, 1983, 1989, 1991년),

밋트만(S. Mittmann, 1995년), 페터슨(J. L. Peterson, 1980년)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지난 40년간의 연구 역시도 요단 동편 성지에 대하여 글뤽 등의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초기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Ⅲ. 요르단의 성지에 대한 지역별 개관

위에서 요단 동편 땅의 성지에 대한 서론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지리적 개요, 역사적 개관, 고고학적 개요를 살펴보았다. 이제 신구약 성경에 언급된 요단 동편 지역을, 『위클리프 성지 역사지리서』(*The Wycliffe Historical Geography of Bible Lands*)와 그 밖의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곧 요단 동편 지역을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다섯으로 구분하여 ‘하우란’

(Hauran)과 ‘바산’ (Bashan), ‘길르앗’ (Gilead), ‘암몬’ (Ammon), ‘모압’ (Moab), ‘에돔’ (Edom) 순(順)으로 다루기로 하자. 이번 호에서는 지면 관계상 그 북쪽 지역은 하우란과 바산 지역만을 소개할 것이다.

1. 하우란과 바산

트랜스요르단의 가장 북쪽 지역으로, 헬몬 산 남쪽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남쪽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르묵 강에 이르는 땅은 ‘하우란’ (Hauran)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남쪽은 구약 시대에는 ‘바산’ (Bashan)으로 알려져 있었다. 서쪽에 위치해 있는 갈릴리가 저지대로 지중해의 비구름이 넘어올 수 있어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데다가 (연간 강수량 300-600mm), 이 지역은 석회암의 기저(基底) 위에 비옥한 화산토로 덮여 있어 그 토양이 비옥하였다. 성경에 의하면, 이 고원지대는 살찐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기르는 데 적절한



글란 고원에 방목되고 있는 소떼

목축지로 알려져 있으며(신 32:14; 시 22:12; 겔 39:18; 암 4:1 등), 밀과 같은 농작물이 잘 자랄수 있는, 그 비옥함을 자랑하였다.

‘하우란’의 중심부는 길이가 80 km, 너비가 32km에 이르는, 나무가 없는 넓은 평지였다. 고대에는 이 평지 서편으로 나무들이 무성했던 ‘자울란’ (Jaulan)이 있었다. 여기에는 동편으로는 활동을 멈춘 화산 지대가 있었고, 남동편으로는 레바논의 숲에 견줄 만한 울창한 삼림을 가진 ‘하우란 산’ (Jebel Hauran)과 ‘드루즈 산’ (Jebel Druze)이 있

었다(나 1:4; 슥 11:1-2). 이 건너편은 동쪽으로 사막이 시작되는데, 이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른다. 이 지역의 어디엔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사사 입다가 부친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형제들로부터 자신의 서자(庶子)됨을 이유로 쫓김을 받았을 때 피신했던 톱(Tob) 땅이 있었다(삿 11:1-3).

히브리어 ‘바산’ (Bashan)에는 ‘평평한 땅’이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지역은 대부분 해발 533-770m에 이르는 고원 지대로 동편 지역은 해발 900m가 넘는다. 고대

의 바산은 지금은 ‘골란 고원’ (Golan Heights)으로 부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터였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남부 트랜스요르단에 이어 북부인 바산으로 가서 에드레이(Edrei, 현재 시리아의 데라아[Dera'a])에서 바산 왕 옥(Og)과 그 백성을 정복하였는데, 그때 정복한 성읍이 60개요 이들은 모두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나라 아르곱에 있었다. 이때 ‘아르곱

(Argob)이란 바산의 영토뿐만 아니라, 그 남쪽으로 압복 강까지 통치했던 옥의 나라 전체를 부르는 명칭이었다(신 3:4; 13-14). 아르곱은 본래 바산 지방의 한 지역이었으나, 세력이 확장된 후 바산 동부 지역과 동일시되었고, 그 서쪽으로는 숲과 초원 지대였다. 이 지역은 출애굽 이전 시기에는 ‘르비임의 땅’이라 불렀는데, 이를 므낫세의 아들 아일이 취한 후 자신의 이름을 따라 ‘하봇아일’이라 칭하였다(신



시리아가 보이는 쿠네이트라의 골란 전망대



골란고원의 상수리나무

3:13-14). 옥 왕국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서로 협력했던, 아모리인 통치자 시혼(Sihon)의 동맹국이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중부 지역 헤스본(Heshbon, 현재 Tall Hisban)에 아모리 왕 시혼을 정복하고, 그 북쪽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신 1:4).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 도피성 셋을 건설했는데(신 4:43), 그 중 가장 북쪽에 세운 도

피성은 바로 당시 바산의 중요한 성읍이었던 '바산 골란'이었다. 이는 므낫세 반(半) 지파를 위한 것이었는데, 나머지 둘은 르우벤 지파를 위해 광야 평원에 세운 '베셀과 갓 지파를 위해 세운 '길르앗 라못'이었다. 바산 지역은 길르앗 라못과 함께 솔로몬의 행정 장관 벤게벨이 관장한 솔로몬의 열 두 행정 구역 중 하나였다(왕상 4:13). 후에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바알을 멸하였으나 벤엘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섬겼던 일로 이 지역은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기도 하

였으며(왕하 10:33), 결국에는 앓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 (Tiglath-pileser III, 주전 745-727년)에 의해 점령되었다(왕하 17장 등 참조).

구약 시대에 '바산'으로 불렸던 지역은 헬라와 로마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바타네아' (Batanea)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헬몬 산과 야르묵 강 사이의 요단 골짜기에 있는 영토는 그 이름이 '가울란

티스' (Gaulantis)였다. '바타네아'는 오늘날에도 '엘-바타니예'라는 아랍식 지명으로 남아 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 셀류기아(Seleucia), 히포스(Hippos), 가말라(Gamala), 아빌라(Abila), 디온(Dion)의 도시들은 바타네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스도 선포 이후 몇 세기 동안 하우란 지역의 도시들은 수로, 저주지, 신전, 극장, 바실리카 등의



사진: 정호진 수필가

가말라의 낙타봉

도시 기반 시설을 잘 갖춘 채 발달하였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Hadrianus, 주후 117-138년 재위) 당시 많은 비문들이 이 근처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음 호에 연재할 ‘요르단의 성지 II’에서 필자는 하우란과 바산에 이어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Edom) 지역의 성지를 살펴볼 것이다.

■ 참고문헌 ■

- Aharoni, Yohanan. *The Land of the Bible. Revised & Enlarged E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 Hoerth, Alfred J. *Archaeology &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1998.
- MacDonald, Burton. *East of the Jordan - Territories and Sites of the Hebrew Scriptures*. Bosto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00.
- McRay, John. *Archaeology &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1991.
- Vos, Howard F. *An Introduction to Bible Geography*. 한정건 · 신득일 공역 『성경 지리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Pfeiffer, Charles F. & Vos, Howard F. *Wycliffe Historical Geography of Bible Lands*. Chicago: Moody Press, 1979.
- Anchor Bible Dictionary VI. s. v. “Transjordan” by H. O. Thompson.

∴ **장흥길** 성균관대학교(B.C.)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나와 독일 에어랑겐대학교(Dr.theol.)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이며 본 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다.